

초등영어 문화 교육의 개선 방향

김 익 상*

〈 목 차 〉

- I. 서 론
- II. 문화간 의사소통능력과 문화교육의 내용
 - 1.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 2. 문화교육의 내용
- III.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개선 방안
 - 1. 문화지도의 내용
 - 2. 언어와 문화의 통합
- IV. 결 론
-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 론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 상의 초등영어 교과는 대부분의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목표 문화(target culture)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영어과 문화지도의 범위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그리고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의 세 범주로 나뉘어 있다.

*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이 세 범주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시에 서로 중첩되어 있어서 문화지도의 내용과 범위를 적절히 개괄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지도하려면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를 필연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와 연관되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정 상에 기술된 문화지도와 관련된 이 세 범주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문화지도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에 관한 내용이나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미약할 정도로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고, 그나마 교사용 지도서에 각 학년별로 20~30항목 정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화지도 내용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그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많은 교육담당자들이 목표언어를 배우다 보면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문화지도와 언어지도를 서로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교육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화 내용을 목표언어와 적절하게 융합시켜 다양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화 지도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먼저 문화간 의사소통능력과 외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이어 초등영어교육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화간 의사소통능력과 외국어 교육

1.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맥락에 적절하게 발화를 이해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Chomsky가 말한 협의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넘어 구조적 문법성, 사회적 적절성(appropriateness) 및 문화적 적합성(feasibility)을 아우르는 광의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 필요하다고 Dell Hymes(1972)가 주창한 바 있다.

그 후 Canale & Swain(1980)은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을 제 2언어와 외국어 교육 과정과 평가에 최초로 도입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을 문법(grammatical), 사회언어학적

(sociolinguistic), 담화(discourse), 책략적(strategic) 등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네 부분 각각에서의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Byram(1997)이 언어학습자는 모국어 화자(native speaker)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화간 의사소통자(intercultural communicators)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목표언어가 1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을 일컫는 소위 문화간 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CC)의 개념을 제안하고 그 능력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현재 유럽 각지에서는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내용의 판단 기준으로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채택하고 있다(Hall, 2002:110).

2. 문화교육의 내용

문화의 정의, 분류 내지는 교육과 관련하여 선구적인 제안을 했던 Brooks(1968)는 문화를 생물학적 성장(biological growth), 개인적 세련(personal refinement), 문학과 순수예술(literature and the fine arts), 삶의 양식(patterns for living), 그리고 삶의 방식의 총화(the sum total of a way of life)의 다섯 부분으로 문화를 정의하면서 교사는 이 중에서 삶의 양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인간 사회의 모든 것(everything)으로서의 문화와 인간 삶의 모든 것 중에서의 최고(the best)로서의 문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문화라고 하였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외국어로 된 위대한 문학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문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Big C” 문화(Olympian culture 또는 culture MLA)가 대단히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일상 생활양식과 관련 있는 믿음(beliefs), 행위(behavior), 가치(values) 등이 강조됨으로써 “little c” 문화(Hearthstone culture 또는 culture BBV)가 언어학습에 있어서 목표 문화 학습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최근에 Seelye(1993:30-31)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지도 목표를 제시하였다.

목표 문화에 대한 흥미 증진과 그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공감대 형성
사람들의 행위와 사회적 변인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이미지에 대한 이해
요구 충족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이해
문화 탐구의 능력 개발

그는 “우리는 학생들이 목표문화권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하여 흥미를 증진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We can help the student develop interest in who in the target culture did what, where and when, and why)라고 하면서 처음 다섯 가지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1996)에서는 문화를 한 사회의 철학적 관점(philosophical perspectives), 행위적 관행(behavioral practices), 그리고 산물(products)의 관점에서 정의하면서, 사회적 관행과 산물이 그 문화적 관점(의미, 태도, 가치, 아이디어 등)을 반영하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Ⅲ. 초등영어 문화 지도의 개선 방안

1. 문화 지도의 내용

서론에서 언급한 교과서나 지도서의 문제점 뿐 만 아니라 교실 활동에 있어서도 문화지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익상·허희숙(2002)에 따르면 교수-학습 활동 내에서 문화교육은 주로 수업의 도입(21%)과 필요할 때마다(68%)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방법은 주로 설명(18%)이나 이야기(4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교육을 그 자체의 목표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흥밋거리나 보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의 초등영어 문화지도는 그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화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목표문화 지도는 목표언어 지도와 더불어 치밀하게 계획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 BBV(beliefs, behaviors, values) 또는 가치 지향(value orientation) 등은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교육 내용이므로 언어를 숙달한 후에 나중에 교육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문화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하나의 예만 들더라도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간을 쓰고(spend), 얻고(gain), 지키고(keep), 채우고(fill), 죽이고(kill), 아끼고(save), 쓰고(use), 낭비하고(waste), 잃고(lose), 계획하고(plan) 하는 등의 대상으로 늘 보고 있는 대부분의 북미인(North Americans)들은 시간에 의하여 마감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도 시계를 보면서 "Oh! Excuse me! I have to go or I'll be late."라고 하면서 헤어지기를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보면 약속시간에 좀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가버리려 하다니 우리의 우정과 인간관계는 뭐지' 하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대화가 단절되고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This food is very delicious!)' 하면서 주인의 접대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경우에 '뭘요(That's really not so.)' 와 같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영어권의 사람들은 'Thank you. I'm happy you like it' 과 같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편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언어 행위의 저변에는 그 문화권의 가치와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각 문화권의 지배적인 가치 지향(value orientation)을 알고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언어적인 행위(nonverbal behavior)에 있어서도 믿음과 가치에 따라 문화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악수(shaking hands)의 예를 들면, 우선 악수의 의미와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악수를 할 때 손을 쥐는 세기와 관련하여 '독일인은 너무 공격적 이야', '일본인은 너무 수줍어(shy)하고 수동적이야' 하는 식의 편견을 가지게 되고 굽기야는 하나의 선입관(preoccupation)으로 굳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영어 문화지도의 내용은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1996)의 구분을 빌어 음식, 도구, 법, 음악, 게임 등 문화적 산물(products)을 비롯하여, 사회생활 상호작용의 패턴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문화적 관행

(practices),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문화적 시계(perspectives)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어교육의 준비기인 초등영어 단계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가까운 지역적인 소재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상황에서 문화지도를 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목표 문화를 동시에 비교 이해함은 물론 지역적인 문화는 물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초등영어교육의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익상·허회숙(2002)이 연구했던 것처럼 각 지역의 역사, 지리, 문학, 예술, 산물, 독특한 생활양식, 의식주 등을 영어로 교육한다면 자신의 문화를 알게 되고 동시에 목표문화도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와 문화의 통합

이영희(2002)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화의식과 영어권 문화의 이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제 문화 지도는 영어 교육에서 매우 필요한 상황에 와 있고 또 학생들이 잘 수용할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피력하면서, 우리도 미국의 외국어 교육처럼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가르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영어를 모국어, 제 2언어, 혹은 외국어로 사용하는 다양한 층의 외국인들을 만나서 교류할 때를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적 차이와 그에 따르는 행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EFL 상황이므로 학생들이 실제 경험한 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알아내는 방법도 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 있음직한 일이나 있었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의 문화적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문제해결 방안을 서로 생각해보는 과업이 중요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문화권의 실제 상황을 영화 클립이나 비디오로 보여주기, 서로 실제로 해 보고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기, 역할 놀이와 드라마 꾸미기 등이 좋은 학습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문화교육의 측면은 실생활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화를 안다는 것은 남의 문화를 인식하고 필요시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좋은 지도 방안을 한 가지 소개하면 교사가 학생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그 질문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Gebhard, 1996:127-8).

〈공중목욕탕의 사용〉

How often do you use a public bath?

What is the most popular bathing time?

Why has bathing always been such an important part of Japanese life?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 하다 보면 학생들은 "Do they have public baths in the United States? When is a popular time for Americans to take a bath?" 등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목표문화와 함께 학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좋은 방법은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하여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도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교육의 여러 단계에서 그 행위에 수반되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의 차이는 교사들이 먼저 인식하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일원이었던 Marshall은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치는 훈련이라고 하였다(Gebhard, 1996: 132).

그 날 배울 내용 정하기(예 : 기차표 사는 법)

원어민의 도움을 얻어 가상적인 대화 준비하기

선생님과 그 대화를 연습하기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연습하기(예 : 기차역에서)

평가하기

이는 언어와 문화가 통합된 훈련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 수업이나 영어마을 등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IV. 결 론

다음에 만들어질 교과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문화 정보와 활동을 장려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욕심으로는 문화내용을 중심으로 언어사용과 그에 해당하는 언어기술(skill)들을 구성해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그러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의사소통중심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언어기능적인 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 반면에 과거 문학 작품을 위주로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덜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 지도서, CD-Rom, Web site 등에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많이 제공하여 현실감 있는 언어 자료인 동시에 문화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담당자들은 목표문화를 우리문화와 관련지어 서로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관점과 행동양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언어는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language and culture are inseparable)는 사실을 인식하여 언어기술과 문화 지도가 가능하면 통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익상·허희숙. (2002). 지역적 소재를 활용한 초등영어 문화지도. *영어영문학* 9, 1-23.
- 이영희. (2002). 초등영어 문화지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8(1), 167-212.
- Brooks, N. (1968). Teaching cul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1, 204-17.
- Brooks, N. (1971). A quest editorial: Culture—a new frontier. *Foreign Language Annals* 5, 54-61.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Ltd.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Gebhard, J. G. (1996).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or Second Language*. 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all, J. K.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Language and Culture*. London: Pearson Education Limited.
- Hymes, D. (1972).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Harmondworth, UK: Penguin Books.
- Omaggio Hadley, Alice. (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Boston, MA: Heinle & Heinle.
- Porter, R. & Samovar, L. (1991). Basic Principl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L. Samovar & R. Porter (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 Seelye, H. (1993).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1996).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wo directions in teaching culture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The first one is related with the following question — what should be included in teaching culture?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elping students understand that cultural practic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ultural perspectives of the society. In the same way, cultural products are reflective of the perspectives of the society from which they come. Thus, teachers are to be sensitive to BBV which underlies the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The second one deals with the way to teach culture with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the language. Until recently the cultural dimension in teaching English was rather neglected. The communicative approach tended to put the emphasis on teaching language skills and communicative functions even without regard to the target culture. The study suggests the integration of culture and language which are at the same time suitable for language teaching and culturally appropriate for a wide range of context. This paper conclude with the saying that culture and communication are inseparable and target culture is taught with the use of target language and understanding of our own culture.